

전투기 100대 vs 무더기 로켓포...이스라엘·헤즈볼라 전면 충돌

헤즈볼라 "로켓 320여발 발사·드론으로 군사기지 11곳 타격" 이스라엘 48시간 비상사태 선포 "선제 타격으로 공격 저지" 미 '이스라엘 방어권 지지' ... 친이란 단체 "헤즈볼라 보복 환영"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25일(현지시간) 새벽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며 전면 충돌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공격 조짐을 포착했다며 전투기 100여대 등을 동원해 레바논 내 헤즈볼라 표적을 선제 타격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300발이 넘는 로켓을 쏟아부으며 지난 달 고위 지휘관이 암살된 데 대한 보복 개시를 선포했다.

로이터,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4시 30분경 전투기 100여대를 출격시켜 레바논 남부 등지의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다.

이스라엘은 공습 개시 직후 이 사실을 발표하고 자국 북부 주민들을 향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고 말했다. 레바논 남부에도 아랍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헤즈볼라의 위협을 공격해 제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전 5시경 이스라엘 북부로 헤즈볼라가 쏜 로켓과 무인기 수백기가 날아오며 공습경보가 잇따라 발령됐다. 헤즈볼라는 지난달 3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고위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가 이스라엘 폭격에 사망한 데 대한 보복으로 로켓 320여발을 발사하고 드론으로 군사기지 11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돌 등 이스라엘 방공망이 작동해 헤즈볼라 로켓을 격추하는 과정에서 텔아비브 북쪽 항구도시 하이프 등지에서도 폭음이 들렸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48시간 동안 전국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곧이어 긴급 소집한 안보내각 회의에서 "누구든 우리를 해친다면 우리는 그를 해칠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공언했다.

양측의 공습은 오후가 되기 전 잦아들었다. 비상사태 선포 직후 이스라엘 민간항공국(CAA)은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의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했으나, 약 한시간쯤 지나 이착륙이 재개됐다.

레바논 당국은 이날 자국에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함정에 탑승 중인 해군 1명이 요격미사일 파편에 맞아 사망하고 다른 군인 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방에 대한 양측 평가는 엇갈렸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헤즈볼라가 벤구리온 공항 등 타격을 시도했지만 선제공습으로 이를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갈란트 장관은 "적은 로켓 수백발을 쏠 계획이었지만 선제공격 덕에 50% 이상, 혹은 3분의 2가량이 발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중부의 전략적 목표물

을 향해 발사한 헤즈볼라 드론을 모두 격추했다"며 "헤즈볼라가 계획한 공격을 저지했다"고 단언했다.

헤즈볼라는 공항 등 민간 시설을 노리지 않았으며, 텔아비브 인근 군사 목표물 타격에 성공했다는 입장이다.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는 "모든 드론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이스라엘 영공에 진입했다"며 "우리 군 작전은 계획대로 정밀하게 이뤄졌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제타격이 효과가 없었다고 일축하며 "오늘 작전 결과를 평가한 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 충돌에 미국은 이스라엘의 방어권 지지를 재확인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갈란트 장관과 통화해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이스라엘과 레바논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고위 관리

들이 이스라엘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동의 친이란 '저항의 축' 무장단체들은 헤즈볼라의 보복을 환영했다.

이스라엘과 11개월째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성명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정부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밝혔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훌륭하고 용기 있는 공격"이었다며 지난달 자신들의 근거지 호데이다항이 공습당한 데 대한 보복도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제사회는 중동 상황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유엔 레바논 특별조정관실과 레바논 내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을 향해 "포화를 중단하고 확전을 유발하는 추가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휴전 협상을 중재해 온 이집트도 이날 외무부 성명에서 '새로운 전쟁'의 발발 위험성을 경고하며 레바논 내 안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호텔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 크라마토르스크 한 호텔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가운데 응급 요원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포체험 촬영장? ...주택 개발? '히틀러 나팔수' 별장 '골칫거리'

베를린시, '무료 기부' 제안에도 인수자 없어

나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1897~1945)의 별장이 20년 넘게 방치돼 골칫거리가 되자 베를린시가 "공짜로 가져가라"고 공개 기부를 하는 교육지책까지 짜냈지만 3개월이 넘도록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베를린시 당국은 베를린 북쪽 브란덴부르크구 반들리츠에 위치한 괴벨스의 별장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무료로 기부하겠다고 공개 제안했다.

그 후로 3개월간 별장 인수에 관심을 가진 단체나 개인들의 제안이 쏟아졌지만, 당국은 아직 적절한 인수자를 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올리버 보르헤르트 반들리츠 시장은 더타임스에 "정말 미친 아이디어들을 제안받고 있다"면서 "현재 여러 제안을 수집하고 있으며 조만간 제안자들을 초대해 직접 만나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제안 중에는 3억 유로(한화 약 4400억원)를 들여 2000 가구 규모의 주택으로 개조하는 등의 방안이 있지만, 별장이 위치한 곳은 인근 마을과 동떨어진 숲속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외에도 별장 내부 전체를 BMX 사이클 경주장으로 바꾸겠다는 제안이나, 별장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공포 체험'을 촬영하겠다는 자칭 '퇴마사' 등의 제안도 있었다고 보르헤르트 시장은 전했다.

문제는 최근 독일에서 소속 정치인들의 나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된 극우 독일대안당을 비롯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네오나치 세력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르헤르트 시장은 현 독일 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극우 단체가 다른 이름을 내세워 몰래 빌라 구매를 시도하려 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괴벨스가 숲속이 숲속에 자리한 이 별장 부지를 처음 소유하게 된 것은 1936년으로 당시에는 지금보다 작은 크기의 별장이 이 자리에 있었다. 당시 체코의 한 여배우와 불륜 관계였던 괴벨스는 이 별장을 의도 장소로 즐겨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괴벨스가 1939년 원래 있던 작은 별장을 허물고 넓이 1600㎡에 방만 70여개에 달하는 호화 별장을 지은 것이 지금까지 남아 당국의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이다.

1999년 이후에는 방치돼 잡초가 자란 폐가로 전락해있다.

건물과 부지를 소유한 베를린시는 건물이 쓰임새 없이 방치돼 유지비만 매년 수억원씩 들자 이를 아예 철거하고 일대를 숲으로 바꾸는 '재자연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을 철거해서 안된다는 브란덴부르크 당국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현재까지 뾰족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가자 휴전협상 또 결렬...중동 확전 우려 속 쟁점 헛바퀴

중동 확전 우려 속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집트 소식통들을 인용해 협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중재국들이 제시한 타협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 이집트, 카타르의 중재로 24~25일 카이로에서 휴전 협상을 벌였다.

양측이 모두 카이로로 협상 대표단을 보내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 쟁점에 하마스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서 협상은 또다시 교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 소식통에 따르면, 중재국들은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 국경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넛자림 회랑'에 주둔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거부했다.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가 석방을 요구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중 몇몇에 대해서 유보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들이 석방된다면 가자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이날

하마스가 운영하는 알아카사TV 방송에서 이스라엘이 필라델피 회랑에서 군을 철수하겠다고 말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또 휴전이 시작되면 가자지구 북부로 귀환하는 피란민들을 검문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면서 "우리는 합의된 것을 철회하거나 새로 조건을 더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필라델피 회랑 주둔과 귀환 피란민 검문 방침은 이스라엘이 지난 5월 제시한 휴전안에는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달에 새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창호(샷시)교체